



포스트휴먼 담론의 사유와 미학적-윤리적 역량 연구

시몽동과 들뢰즈, 과타리의 인간-기계 사유를 중심으로

강진숙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새로운 지능정보 사회의 인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성찰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포스트 휴먼의 사유들과 기술문화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이용자들의 디지털역량을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포스트휴먼의 사유들을 살펴보고 이용자들의 디지털역량을 정립하기 위한 문제설정과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포스트휴먼 담론의 이론적 지형을 검토하고, 기술철학과 인간-기계의 관계에 대한 문제설정과 논점들을 질베르 시몽동(G. Simondon)과 질 들뢰즈(G. Deleuze), 그리고 펠릭스 과타리(F. Guattari) 등의 사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인간-기계의 관계설정에 근거하여 포스트휴먼 담론의 지형과 미학적-윤리적 역량의 필요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포스트휴먼의 주제성 연구와 미디어교육적 측면에서 이용자의 존재론적 특성과 역량의 발명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포스트휴먼, 시몽동, 들뢰즈, 과타리(가타리), 기계

* jskang1@cau.ac.kr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관련해 다양한 포스트휴먼과 인간-기계의 관계에 대한 담론들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래학적 전망 속에서 인간과 ‘첫 로봇시민’인 소피아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 간의 만남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도 다양한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새로운 지능정보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은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할까?

이용자의 역량은 4차 산업 혁명이나 미래의 변화 동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 지능 유형과 특징을 설명한다(Schwab, 2016/2016). 즉 인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상황 맥락 지능 (정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결합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정서 지능 (마음)’, 개인과 공동의 이익을 피하기 위한 영감 지능 (영혼), 그리고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구축, 유지하는 능력인 ‘신체 지능 (몸)’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서와 영감의 측면에 다른 인지적, 신체적 지능과 함께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권력을 얻은 시민’과 ‘권력을 잃은 시민’을 구분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기술로 인해 권력을 얻거나 혹은 정부, 기업, 이익집단으로부터 소외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고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에도 이미 미래의 핵심적 직업역량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미래연구소(Institute for the Future, IFTF)가 피력한 미래의 변화를 견인하는 동인과 핵심적 직업역량이 그것이다. 여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량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은 ‘가상의 집단 협업능력’이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과의 협업 속에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가상 팀의 일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IFTF, 2011). 이러한 의견은 이용자들이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다양한 협업과 집단지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은 디지털 역량이다.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비평능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고 새롭게 구성 및 제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사이버공간의 문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언어폭력이나 또래 집단 내의 사이버폭력, 나아가 디지털 격차와 소외 현상 등 부정적인 미디어 환경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역량에 대한 관심과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파올로 비르노(Paolo Virno, 2001/2004)가 언급하듯이, 다중은 일상적으로 감정적 어조인 편의주의와 냉소주의 같은 ‘나쁜 감정’을 경험할 뿐 아니라 자기 내면에는 상상과 구원, 묵인과 갈등, 그리고 예측과 자유를 담지하고 있는 전쟁터이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생명력을 받

회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지능정보 사회의 인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성찰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포스트휴먼의 사유들과 기술문화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이용자들의 디지털역량을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포스트휴먼의 사유들을 살펴보고 이용자들의 디지털 역량의 토대가 되는 미학적-윤리적 역량을 정립하기 위한 문제설정과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술철학과 인간-기계의 관계에 대한 문제설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서 질베르 시몽동(G. Simondon)과 질 들뢰즈(G. Deleuze), 그리고 펠릭스 과타리(F. Guattari) 등의 사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포스트휴먼의 다양한 담론 지형들을 탐색하고, 어떠한 미학적-윤리적 역량이 중요하게 제기되는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포스트휴먼의 주체성과 실천 역량의 이론적 모색을 비롯하여 미디어교육적 측면에서 이용자의 존재론적 특성과 역량의 발명을 위한 실천적 방향성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포스트휴먼의 사상적 자원: 인간-기계 관계 설정과 정동(affect)의 역량

여기서는 포스트휴먼의 사상적 자원으로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설정, 그리고 정동의 역량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과연 시몽동의 ‘인간-기계의 양상불’과 들뢰즈와 과타리의 기계론과 ‘아상블리주’는 어떠한 이론적 함의를 지니며, 포스트휴먼 주체의 정동과 미디어 능력을 개발하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여기서는 시몽동과 들뢰즈와 과타리의 인간-기계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요 개념과 사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정서적 감동(émotion)’과 ‘정동(affect)’에 대해 횡단적 방법에 기초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시몽동의 인간-기계 관계 설정과 ‘정서적 감동’

프랑스의 기술 철학자인 시몽동(1924~1989)은 소르본-파리 4대학 교수로 재임하며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해 다양한 저술들을 출간하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한 저서들인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주논문)와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부논문) 등은 국내에서도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1958년에 제출된 전자의 경우 주로 개체화론을 담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기술철학이 집대성되어 있고, 양자 사이의 관계는 두 저서에 제시된 상호 참조의 내용들에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김재희, 2017). 그 밖에도 그의 사후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시몽동에 대한 사유는 강의와 강연원고들을 엮은 저서들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imondon, 1958/2011). 여기서는 시몽동의 방대한 사유들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간-기계의 관계 설정, 그리고 포스트휴먼 공동체의 실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서적 감동’의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기계의 관계 설정

인간-기계의 관계에 대한 시몽동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 인간, 그리고 기술문화 등에 대한 개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계는 지배의 수단이나 허구적 기교의 산물이 아니라 기술성이 개체수준에서 표현된 ‘기술적 대상’이다((Simondon, 1958/2011). 시몽동은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1958/2011)에서 기술만능주의를 비판하며 기술적 대상으로서 기계들을 정의하고 있다. 기술만능주의는 기계에 대한 이상숭배에 불과하고 이를 동일시하며 무제한적인 능력을 얻고자 하는 “테크노크라트, 즉 기술 관료의 열망”을 의미한다(Simondon, 1958/2011, 11쪽). 즉 권력에 대한 기술 관료의 욕망은 기계를 헤게모니 획득을 위한 지배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현대식 미약(媚藥)”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동료들까지 지배하고자 안드로이드 기계를 불러낸다(Simondon, 1958/2011, 11쪽). 하지만, 이러한 로봇은 기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단지 상상력과 허구적인 꾸밈과 환상을 만들어내는 기교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문화에는 두 가지 모순적인 태도가 발견된다. 한편으로 기계와 같은 기술적 대상들을 의미작용이 없는 “물질의 조립물”(Simondon, 1958/2011, 12쪽)로서 보며 그 유용성만을 강조하는 태도가 있다면, 또 다른 한편의 태도는 로봇과 같은 기술적 대상들이 인간에게 반란과 위협을 초래하는 적대적인 의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자의 결론은 기계들을 인간의 노예와 같이 예측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집약된다. 문제는 그 인간-기계의 예측관계에 대한 시각이 인간 자신에 대한 지배력과 내적 통제를 상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점에 있다. 시몽동이 강조하듯이, 이러한 기술관료 지배체제의 철학은 이미 예측화되는 폭력에 감염되어 있고, 독재적인 기술적 상상불에서 출발하는 기술만능주의는 “고삐 풀린 정복 의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Simondon, 1958/2011, 184쪽). 따라서 인간-기계의 관계 설정에서 위계적이거나 종속적인 위상은 기술만능주의의 산물로서 파악된다. 즉 기계는 기술적 상상불의 요소로서, 정보량과 역엔트로피(négentropie)를 증가시키는 조직화의 작품이자 세계의 안정장치인 것이다(Simondon, 1958/2011, 19쪽).

두 번째로, 시몽동에게 인간은 기계의 지배자나 감시자가 아니라 “기계들을 연결시켜주는 살

아있는 통역자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기술적 대상들의 상설 조직자”이다(Simondon, 1958/2011, 13쪽). 즉 기술적 대상의 사용자는 단지 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기계를 선택하고 보전하는 인간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적 양식을 발견”하고(Simondon, 1958/2011, 361쪽), 사회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실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술공학자의 임무는 문화를 창안하는 이들, 즉 작가들이나 예술가들 옆에서 기술적 존재자들의 대표자로 있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기술의 미완성이 특정한 목적들을 신성화하고 “인간 자신이 절대적인 것으로 표상한 목적들”에 또 다른 인간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Simondon, 1958/2011, 217-218쪽). 이러한 맥락에서 시몽동이 강조하는 ‘인간-기계 앙상블’은 인간과 기계의 본질적 차이에 근거해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적으로 연대하는 평등 관계의 민주적 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김재희, 2017). 이러한 앙상블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조정자나 발명가”가 되어야 한다(김재희, 2017, 141쪽). 즉 인간은 기계들과의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망 속에서 공존하며 발명과 같은 기술적 활동 자체를 일상의 삶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술적 앙상블”은 기술적 개체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상호 접속 관계의 기술적 개체들로 짜인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이다(Simondon, 1958/2011, 183쪽). 즉 기술적 개체들을 정보의 관계망 속에 놓고 고려하지 않고 활용하기만 하는 기술철학은 기술을 통한 인간의 역량에 대한 철학이지 기술에 대한 철학이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몽동이 비판하는 바, 권력의 수단으로 기계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독재적인 철학”(Simondon, 1958/2011, 183쪽)의 오류를 범하거나 기계를 자연의 힘들을 지배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예측화 하는 데 쓰이는 일단의 기계들에 대한 지배력조차도 예측화 도식들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기계의 앙상블을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모든 지배가 예측화 도식을 수용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Simondon, 1958/2011, 184쪽). 이를 위해 인간의 사회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것이 기술문화의 이해와 교육이다.

마지막으로, 시몽동은 기술문화 교육의 기획을 제안하며 사회변혁을 위한 가치 지향을 설파하고 있다. 시몽동의 관점에 따르면, 자동 로봇은 기술적 개체의 전형이 아니고,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닫힌 시스템”이며, 자동성은 기술적 완전성에서 낮은 정도에 해당한다(김재희, 2017, 235쪽). 기계의 특수성은 인간과 달리 자기 자신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문제 제기 역량이나 자기 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정보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 등을 통해 인공지능 스스로 자기 학습의 강도를 높여가며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작동규칙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의미와 정보의 생산은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몽동은 인간이 기술문

화 교육을 통해 “기술적 상상블들을 흡수하는” 기술문화 활동들을 수행하고, 그 기술적 상상블을 따라 인간의 삶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Simondon, 1958/2011, 324쪽). 예컨대, 기술들의 진정한 도식에 대한 인식과 직관을 자신의 활동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발명하는 인간과 발명된 기계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존재 방식과 규범 체제를 벗어나 진개체적 잠재성을 새롭게 현실화하며(김재희, 2017), “인간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조절하게 하는”(Simondon, 1958/2011, 325) 기술문화와 의사소통의 조정 장치들을 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예로 김재희는 2005년 <make> 잡지 창간 이후 활성화된 ‘메이커 운동’의 사례를 들고 있다(2017, 236쪽 주46 참조). 이 운동은 디지털 기술과 도구의 대중화, 제작 방법을 공유하는 오픈소스 문화를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 생활용품, 로봇, 드론, 인공지능, 우주선까지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 수 있게 한다. 또한 <모두의 연구소 기술블로그>(http://www.whydsp.org/)에서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학습 및 제작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주의의 성벽을 허물고 일반인들도 드론과 알고리즘, 딥러닝과 해킹의 원리를 이해하고 공동의 기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상상블’을 추구하는 시사적인 사례이다. 왜냐하면, 그자비에 귀셰(xavier Guchet)가 언급하듯이 “기술 문화는 기술들이 가져온 인간 실재의 변형 능력의 발견”이고, 진정한 기술문화는 “집단들을 개방하고 변형되도록” 하기 때문이다(Guchet, 2010, p. 244; 김재희, 2017, 142쪽 재인용). 즉, “기술은 내기이고, 시도이고 위협의 수용”이면서, 인간 종 안에 있는 “진화 능력의 가장 구체적인 양식”인 것이다(Guchet, 2010, p. 245; 김재희, 2017, 142쪽 재인용).

요컨대, 시몽동의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기계의 상상블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기술적 대상인 기계와의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며 기술관료주의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기계의 상상블을 문화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발명과 같은 기술적 활동과 의사소통의 조정 장치로서 학습 및 제작 공동체에 참여하여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별적 힘이 아니라 개체초월적 집단 지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체초월성과 역량의 발명

그러면, 인간-기계의 상상블을 구현하기 위해 인간은 어떠한 실천과 역할을 행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시몽동의 사유를 참조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가 생물학적 개체에서 ‘기술적 주체’로 질적 도약하기 위한 개체초월적 관계와 역량의 발명에 대한 것이다. 이 논리는 시몽동이 박사학위 주논문과 부논문 등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개체초월적 관계와 역량의 발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시몽동이 자신의 개체론과

기술철학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개체초월성(transindividualité)”은 개체들 사이의 관계와 집단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개념이다(Simondon, 1958/2011, 355쪽). 즉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é)과 상호개체성(interindividualité)이 단지 서로 분리된 실체인 개체(또는 주체/주관)들 사이의 소통관계를 의미한다. 즉 상호개체성은 개체들 사이의 교환으로서 여기서는 새로운 개체화가 일어나기 보다는 단지 동일한 수준의 개체화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Simondon, 2005/2017, 315쪽). 반면, 개체초월성은 개체의 죽음에도 소진되지 않는 “전(前)개체적인 퍼텐셜(potential, 잠재력)”로서 개체들 각각의 존재 자체를 넘어서서 개체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 맺음과 집단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Simondon, 1958/2011, 355쪽; 362쪽). 시몽동이 강조하는 기술적 활동은 이러한 “개체초월적 집단(collectif transindividuel)”의 수준에서 실현된다(김재희, 2014, 404쪽). 즉 여기서 ‘전(前)개체적 실재(réalité pré-individuelle)’란 시몽동의 개체화론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실재의 지속적인 개체화 작용 안에서 소진되지 않고 존속하며 새로운 개체화의 산출동력이 되는 “퍼텐셜 에너지”를 의미한다(김재희, 2014, 405쪽). 이와 관련하여 시몽동은 기계 등의 기술적 대상을 개체초월적 관계의 표현매체이자 상징으로서 규명한다. 즉, “인간 주체에 의해 발명되었고, 사유되고 요구되었으며 책임 지워졌던 것으로서의 기술적 대상은, 우리가 개체초월적(transindividuelle)이라 부르고자 하는 관계의 표현매체이자 상징이 된다(Simondon, 1958/2011, 354쪽).”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개체에서 ‘기술적 주체’로 질적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체초월적 관계의 발명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발명’은 어떤 개인이나 개체의 탁월한 역량이 아니라 “존재자의 무엇인가를 실어 나르는” 개체초월적 역량을 가리킨다(Simondon, 1958/2011, 356쪽). 왜냐하면, 발명하는 것은 개체가 아니라 바로 주체, 즉 기술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는 노동하는 생물학적 개체와 달리 더 광대하고 풍부하며, 개체화된 존재의 개체성 외에도 자연, 즉 비-개체화된 존재자의 어떤 무개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컨대, 개체초월적 관계의 발명은 인간-기계의 양상불의 효과를 통해 새로운 관계의 변이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다중지성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다.

(3) 정서적 감동

그러면, 개체초월적 관계를 통해 어떻게 기술적 주체의 형성이 가능한가? 시몽동은 이에 대해 ‘정서적 감동(émotion)’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서적 감동이란 주체화 과정에서 개체들 사이의 개체초월적인 집단적 연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서를 의미한다(김재희, 2017). 기존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주체는 불안과 고독을 느끼게 되지만, 이런 느낌들은 개체초월적

인 관계의 형성과 함께 집단적으로 동감하고 감동하는 정서로 변이하기 때문이다. 즉 “집단적인 것이 개체화”하는 순간 정서적 감동의 변이가 발생하는 것이다(Simondon, 2005/2017, 157쪽).

이러한 정서의 변이는 17세기 네덜란드 사상가인 스피노자가 그의 주저 〈에티카〉에서 제기한 ‘정동(情動, affect, affectus)’의 사유를 환기시킨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동은 개별적인 정서의 변이와 이행능력을 의미하며, 인간의 정동은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인 욕망, 기쁨, 슬픔으로 이루어진다(E3p11s). 예컨대, 즐거운 만남을 통해 경험한 기쁨의 정서는 나의 “자기보존의 노력”인 코나투스(conatus)를 더 큰 완전성으로 이끄는 반면,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사람과의 만남은 나의 능력을 더 위축시키고 슬픔의 정서로 나를 유도하게 된다(E4p18s). 즉 쾌감과 유쾌함, 사랑의 정서들로의 변이들은 나의 힘을 증가시키는 반면, 고통이나 우울함의 상태로의 이행은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강진숙, 2014). 따라서 나의 코나투스 혹은 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만남과 관계들을 형성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왜냐하면, 정서의 변이인 정동은 개인의 고립된 행동에서 가 아니라 또 다른 개인이나 집단들과의 관계와 활동들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두운 방안에 홀로 앉아 또 다른 내면의 자아와 대면하는 것 또한 정동의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슬픔의 수동적 정서에 머물러 있고 또 다른 만남이나 정서의 변화를 두려워할 경우 나의 코나투스는 더 커지거나 작아지기가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 시몽동이 강조하는 ‘상호 협력적인 인간-기계 양상불’은 스피노자의 정동에 사유와 쾌를 같이하며, 코나투스 능력을 능동적으로 변이시키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계의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포스트휴먼의 기술적 활동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몽동의 기술철학과 연동하여 들뢰즈와 과타리의 기계론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물려 있다.

2) 들뢰즈와 과타리의 인간-기계 관계 설정과 공명/정동

(1) 들뢰즈와 과타리의 기계론

그러면, 들뢰즈와 과타리는 어떠한 기계(machine)의 사유를 전개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여기서는 구조 개념을 대체하는 기계의 사유와 욕망기계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계를 기술적 기계를 넘어서서 역동적인 구조변화의 운동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방대한 사유들을 모두 펼쳐놓기 보다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기계의 사유가 어떻게 구조 개념을 대체하는 위상을 지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들뢰

즈와 과타리의 기계와 기호에 대한 사유는 주로 공저인 〈안티 오이디푸스〉(1972/2014), 〈천개의 고원〉(1980/2001)과 과타리의 저서 〈분자혁명〉(1977/1998), 〈기계적 무의식〉(1979/2003) 등에서 전개된다. 들뢰즈와 과타리의 유물론적 사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계’의 개념은 기계학(mécanique, mecanisme)과 구분된다(Guattari, 1979/2003). 그러면, 기계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은 사용의 차원에서 본 ‘작동(operation)’의 방식과 다양한 기계의 사용을 규정하는 ‘절단’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구조주의의 정태적이고 닫혀있는 구조 개념과 달리 기계는 작동과 분리 및 절단의 방식을 통해 다양한 기계들의 운동과 특징들을 보여준다.

먼저, 작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계의 생산적 활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과 타리에 따르면, 기계란 “작동”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결정론적이고 자기 폐쇄적인 코드화된 관계를 다루는 기계학과 달리 기계들의 작동과 접속에 초점을 둔 것이다(Guattari, 1979/2003, 398쪽). 따라서 들뢰즈와 과타리의 사유에서 기계는 ‘기계론’으로 통칭되는 이론적 접근 속에서 논의된다. 이러한 기계의 특성은 기계의 작동 방식뿐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산출 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이진경, 2016, 113쪽). 예컨대, 어떠한 기계가 ‘고장 났다’는 것은 특정한 결과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광의적 차원에서 기계는 기술적 기계뿐 아니라 이론적, 사회적, 예술적 기계들을 포함하며,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고 집합적 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기술적 기계는 공장에서 사회적 기계, 훈련기계, 조사연구기계, 시장기계 등과 상호작용한다(Guattari, 1979/2003). 또한 사회적 기계로서 전쟁기계(machine de guerre), 사랑기계, 혁명기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예술적 기계들로서 책기계, 그림기계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모든 기계들을 통칭하여 들뢰즈와 과타리는 “추상기계(machine abstraite)”라고 명명한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14쪽). 여기서 ‘추상기계’란 특정한 지층(地層) 위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이 갖는 특이성을 가장 극도로 추상화한 것을 말한다(Deleuze, 1986/1996).

또 다른 한편, 기계가 갖는 특징은 절단의 차원에서 파악된다. 들뢰즈와 과타리에 따르면, 기계는 “절단들의 체계”이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74쪽). 즉 기계들은 연속된 물질적 흐름과 연관되어 있고, “햄을 절단하는 기계”처럼 기능한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74쪽). 이러한 기계의 절단은 또한 다른 기계와 연결되는 한 흐름의 절단을 생산하며, 다양한 흐름의 방출과 절단을 통해 결과들을 산출한다. 예컨대, 거식증의 입은 위 기계, 향문 기계, 입 기계, 호흡 기계 등의 사이에서 주저하며 다양한 기계의 작동을 보여준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입이 음식과 접속하여 맛과 영양소의 흐름을 절단 채취하면 ‘먹는 기계’가 되고, 전화기와 접속하면 ‘말하는 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들뢰즈와 과타리의 기계 개념은 시몽동의 기계 개념과 유사성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시몽동에게 기계란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창의적인 기술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술적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근대적 휴머니즘의 사유 속에 내재한 이성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간과 기계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들뢰즈와 과타리의 기계론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다만, 이들의 경우 기술철학을 강조하는 시몽동과 달리 기계론의 범주를 기술적 기계뿐 아니라 다양한 이론적, 사회적, 예술적 기계들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포스트 휴먼의 새로운 신체들과 접속들을 대안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이유는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제시했듯이, 한 자연으로서의 실체라는 일의성 안에서 모든 개체들의 작동을 양태들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계의 작동과 유사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이진경, 2016). 즉 인간-기계의 접속과 작동방식, 그리고 산출효과들에 대한 성찰은 포스트휴먼 관계들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욕망기계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점이다. 들뢰즈와 과타리의 욕망 개념은 ‘행동’ 혹은 ‘운동’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강진숙, 2015). 인간을 욕망하는 기계, 즉 욕망기계로 표현한 것도 데카르트식의 ‘코기토’ 논리의 표상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생산하고 흐름을 채취하며 절단하는 욕망의 생산 작용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욕망기계로서의 인간 주체는 다양한 다른 기계들과 접속하거나 또 다른 생산을 위해 분리, 절단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들뢰즈와 과타리가 말하는 욕망의 배치로서, 모든 기계들은 기계들과 접속하거나 절단하면서 “모든 것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한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27쪽). 욕망은 오이디푸스의 고대 극장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공장”에서 현실을 생산하기 때문이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57쪽). 즉 욕망은 결여가 아닌 생산 활동을 수행하며, 단지 결여하고 있는 것은 “고정된 주체”일 뿐이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61쪽). 따라서 욕망은 단순히 쾌락이나 ‘결여로서의’ 욕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계들의 작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다. 즉 욕망은 기계들 사이의 다양한 흐름과 선들을 서로 교차하고 횡단하며, 지속적인 기계들의 관계를 통해 차이를 생성해내는 생산 활동인 것이다.

(2) 기계적 배치의 세 가지 방식과 공명/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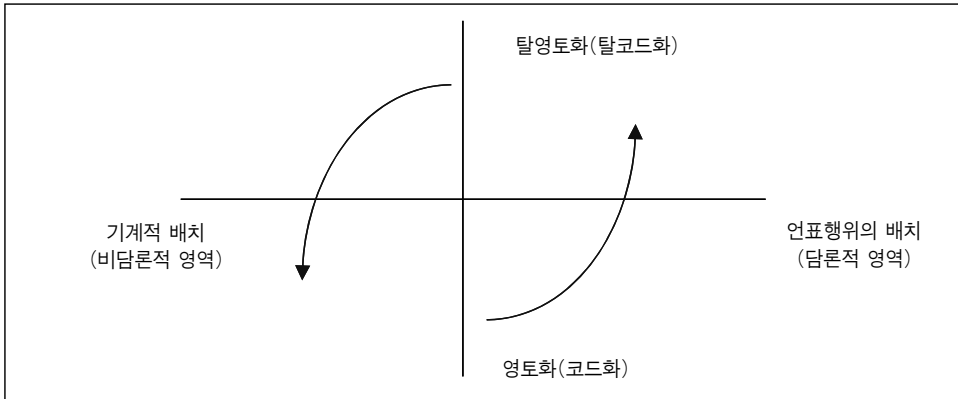
그러면, 기계들은 어떻게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가? 들뢰즈와 과타리는 ‘기계적 배치(agencement, assemblage)’ 개념을 통해 이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 기계는 스토아 학파의 ‘sôma’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계와 같은 물체의 작동을 분석하는 데 유의미하다. 스토아학파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sôma)과 비물질적인 것(asôma)을 구분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는 기계들의 작동(시물라크르, 사건)과 언표행위들(의미)들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사

상적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배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선, 배치란 다양한 기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해 작동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흐름과 운동성을 만들어내는 생산방식이다. 이러한 배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기계적 배치와 언표행위적 배치가 그것이다. 즉 심층에서 물질적인 기계들이 서로 접속하고 결합하는 것이 기계적 배치라면, 언표행위적 배치는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표면효과로서의 사건이 특정한 언어로 의미화 되는 방식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예컨대, 강의실에 의자와 책상, 컴퓨터, 학생, 교수 등이 어떻게 접속하고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 ‘기계적 배치’의 작동방식이라면, 강의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언어로 발표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특정한 의미들을 표현하는 것이 ‘언표행위적 배치’이다. 중요한 것은 강의실의 강의는 교수와 학생, 강의 내용이 바뀌어도 반복적으로, 하지만 차이의 반복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 배치의 작동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욕망의 생산과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론적 운동성을 보여준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욕망의 배치에 대한 다양한 양태들을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전개하는 한편, <천개의 고원>에서 다양한 기계적 배치와 언표행위적 배치들을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기계적 측면과 언표행위적 측면을 포함하여 ‘배치의 4가성(4價性: tetravalence)’이라고 통칭된다(Deleuze & Guattari, 1980/2001)(<그림 1> 참조).

그림 1. 배치의 4가성(價性)



그러면, 기계적 배치의 4가성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우선, 수평적 배치로서 기계적 배치와 언표행위의 배치가 작용한다. 즉 물질적 기계들의 생산을 계열화하는 것이 기계적 배치라면, 언어와 명제들을 계열화하는 것이 표현형식이다. 카프카의 소설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강진숙, 2015). 기계적 배치는 ‘배-기계, 호텔-기계, 서커스-기계, 성-기계, 감옥, 법정기계’ 등

을 통해 나타난다면, 언표행위의 배치는 ‘관결, 사형선고, 법률, 소송’ 등을 통해 표현된다. 또 다른 한편, 수직적인 배치로서 영토회(코드화)와 탈영토회(탈코드화)의 배치가 작용한다. 이러한 배치의 4가성은 푸코의 ‘비담론적 영역’과 ‘담론적 영역’의 이원적 구분에 기초해 권력의 배치와 주체화 방식들을 사유하는 접근 방법이다. (강진숙, 2015).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들뢰즈와 과타리는 동질화된 코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힘들과 욕망의 배치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코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푸코의 담론 이론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물질적 조건과 주체 구성방식들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저항의 주체 생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푸코의 개념은 공간적 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공간 내에서 이질적인 공간 및 장소들의 병치와 공존을 나타내고 있다면, 들뢰즈와 과타리의 배치 개념에는 기계장치들이 조합을 통해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다. 요컨대, 이질적인 항들이 상호관계하고 연결됨으로써 한편으로는 기계적 배치를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호들을 통한 언표행위의 배치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계들의 욕망이 생산되는 흐름과 매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푸코처럼 기계적 배치의 물질적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대한 대안적 전망들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들뢰즈와 과타리의 사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배치는 힘이나 권력의 작동방식 뿐 아니라 차이의 생성, 즉 이질적 행위의 흐름과 양상들을 드러낼 수 있는 실천의 측면을 드러낸다. 선분화는 욕망의 신체적 흐름들을 보여주는 기계들의 접속이 만드는 집합체를 말한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이 선들은 일정한 사회적 규범과 질서, 양식과 공통감각 등을 바탕으로 수직적으로 횡단하거나 수평적으로 접속하며 다양한 욕망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선분화는 경직된 선, 유연한 선, 그리고 탈주선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표 1〉 참조).

표 1. 들뢰즈와 과타리의 배치 및 선분화 방식

	경직된 선 (line of rigid)	유연한 선 (line of supple)	탈주선 (line of flight)
정치 유형	국가장치	미시물리적 권력 구조	권력의 균열 및 새로운 변이 생성
특징	- 거시적 영역 - 권력의 기시화·집중화 - 권력장치는 거대한 집중화된 장치로 현실화됨	탈중심화된 미시 권력장치들이 분자적 흐름들 전반으로 확산, 선분화하는 구조	탈주선의 흐름을 따름, 권력장치들을 무력화함
영역	능력의 지대	식별불가능성의 지대	권력의 무능지대

출처: 강진숙 (2015). 정동의 정치와 주체화 연구 방법 - 미디어 비오그래피: 푸코, 아감벤, 들뢰즈의 정치와 주체화, 배치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1권 4호, 20쪽 재구성.

〈표 1〉에서 제시했듯이, 우선 ‘경직된 선’은 분자적인 힘의 흐름들을 몰(mole)적, 위계적 심급으로 이차원적으로 분할하는 배치의 방식이다(강진숙, 2015). 그 효과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위계와 질서를 부여하는 데서 나타난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예컨대, 백인, 남성, 청년 등 인종, 성별, 연령별 표준척도를 전제하여 지배적인 사회적 통념과 양식, 규범 등을 정의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역할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구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척도에서 벗어나거나 ‘경직된 선’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금, 감금, 구속 등의 합법적, 폭력적 처벌이 가해진다. 요컨대, 경직된 선은 국가장치가 개입하여 법률적으로 복종하는 주체를 만들거나 공권력 등의 물리력이나 선입견 및 편견의 확산 등을 통해 위계적 질서를 형성하는 배치 방식이다.

다음으로 ‘유연한 선’은 분자적 흐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가와 같은 거시적 영역이 아닌 탈중심화된 미시적 영역들이 포함된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강진숙, 2015). 예컨대, ‘계급’의 물질 덩어리나 집단으로 선분화될 수 없는 대중(mass)들의 행동이나 관료주의의 사례에서 나타난다. 이른바 국가장치가 아닌 ‘미시물리적인 권력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이 선분은 다양한 욕망의 흐름들을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분자화한다. 문제는 이 유연한 선분이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경직된 선이 되어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왜냐하면, 유연한 선의 운동성이 경직된 선과 달리 다양한 선들을 축적하고 견고히 하는 조직이나 거시적 권력의 관계들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지만, 현실적인 배치의 상황에서는 경직된 규범과 위계질서 속에서 사회적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탈주선은 물질적인 선들을 해체하고 새롭게 다양한 변이의 흐름들을 생성해내는 배치의 방식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이것은 ‘~되기’의 방식으로 표현되며 한 사회의 표준척도인 다수자가 아니라 차이를 생성하는 ‘소수자 되기’ 사례를 통해 발견된다. 예컨대, 아이 되기, 여성되기, 노인 되기, 동성애자 되기, 부랑자 되기, 광물되기, 동물되기 등의 소수자 되기 실천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탈주선의 정치적 효과는 기성의 전체주의, 관료주의, 집단주의 등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지닌 미시적인 권력장치와 소수자 실천들을 시도하는 데 있다. 따라서 들뢰즈와 과타리의 배치 방식은 역사적인 권력의 배치와 조건들을 분석하는 푸코와 달리 권력 이전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권력은 배치의 한 지층을 형성할 뿐이지만 욕망은 언제나 흐름을 통해 배치되기 때문이다(강진숙, 2015). 이러한 점에서 욕망의 배치에 대한 사유는 경직된 선이나 유연한 선들을 통해 조직되는 권력 장치 이전에 몰과 같은 욕망의 흐름들을 포착하고 새로운 미시권력의 조직화를 가능하게 한다.

(3) 공명/정동의 사유

들뢰즈와 파타리는 스피노자의 '정동'사상에 영향을 받아 공명의 사유를 전개한다. 공명(共鳴)은 스피노자의 정동 개념과 마찬가지로 기계들 혹은 존재자들 사이의 마주침을 통해 기쁨 혹은 슬픔 등의 정서적 변이와 이행을 일으키는 능력이자 효과이다(강진숙, 2014). 이러한 '공명'의 사유는 <프루스트와 기호들>, <천개의 고원>, 그리고 <차이와 반복> 등의 여러 저술들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면, 공명은 어떠한 것인가? 공명이란 기계들의 접촉이나 신체들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변이'를 일으키는 정동의 효과이다. 기계란 "이질적인 항들 간의 '이웃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조화"이기 때문이다(Deleuze, 1977, p. 125). 들뢰즈에 따르면, 기계는 공명들 혹은 공명의 효과들을 생산하며, 이것은 비자발적인 기억이 일으키는 효과들을 통해 발견된다. 이 효과들이란 "현재와 과거 두 순간이 공명하게끔 만드는 효과들"이다(Deleuze, 1964/1997, 237쪽). 이러한 공명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는 프루스트 소설의 '마들렌 체험'을 통해 설명된다. 유년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권)에 등장하는 '마들렌 효과'는 어린 프루스트의 '삶의 재난'과 '그 짧음'을 착각으로 여기고 잊게 할 정도로 기쁨의 정동을 일으킨 경험이다. 우연히 맞본 마들렌의 경험은 병약한 현재의 어린 프루스트에게 과거의 고향 마을 콩브레를 상기하게 했고, 그 순간 슬픔에서 기쁨으로 정서의 이행, 즉 정동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명 체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대상 사이에서 차이가 발견될 경우 나타난다. 즉 공명은 과거 콩브레의 기쁨 마들렌과 현재의 슬픈 마들렌의 맛이 서로 이질적인 감각으로 통하면서 생기는 정서의 변이인 것이다. 마들렌 조각이 녹아든 홍차 한 숟가락을 기계적으로 입술에 가져간 순간, 프루스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미로운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가 경험했던 정서의 변이, 즉 정동은 '슬픔의 정서'에서 '기쁨의 정서'로 이행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초라하고 우연적이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도대체 이 강렬한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Proust, 1913/2012, 86쪽).

여기서 프루스트가 물음을 던지듯이, 기쁨을 주는 공명의 효과는 어디서 오는가? 이러한 프루스트의 독창성은 고전적 형이상학의 분야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구분"을 추출해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Deleuze, 1964/1997, 241쪽). 즉 한편으로, 공명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추출해내며 그 조각들이 가진 고유한 목적에 따라 조각들이 공명하게끔 하지만 "그것들을 전체화하지는 않는다."(Deleuze, 1964/1997, 238쪽). 따라서 공명 효과는 세계가 전체화된 것이 아니라 파편적인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는 차이가 있지만, '맛보다'는 것은 공통성의 관념을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하다(서동욱, 2008).

두 시점의 미들렌 경험이 서로 다른 특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 시차를 넘어 과거의 감각적 경험만으로도 현재의 정서적 변이, 즉 기쁨의 정동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선험적 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들뢰즈(Deleuze, 1969/1999)가 〈의미의 논리〉에서 언급했듯이, 그 공명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 근거는 ‘맛보다’, ‘기쁘다’, ‘느끼다’와 같은 비인칭 서술어들에서 발견된다. 소위 ‘순수 사건’으로 지칭되는 이 서술어들은 기계나 주체들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명효과로서 기쁨과 슬픔의 정동을 가능케 한다(강진숙, 2014). 이른바 들뢰즈가 칸트의 사유에서 영향을 받은 선험적 객관성의 논리로서 반복되지만 동일자에 귀결되지 않는 ‘차이의 반복’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조도 ‘비물질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하나의 기계’로서 언표행위적 배치를 통해 의미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Deleuze, 1969/1999).

이러한 맥락에서 들뢰즈의 사유는 스피노자의 우산 속에 있다. 즉 들뢰즈는 기본적으로 “차이와 반복의 놀이가 동일성과 재현의 놀이를 대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Deleuze, 1968/2004, 593쪽). 이 놀이는 스피노자의 정동처럼 신체들의 마주침, 즉 우발성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변이되는 힘들에 근거한다. 즉 공명이란 플라톤의 ‘상기’와 달리 다른 영역으로부터 모든 조각들을 전체화하지 않는다. 공명은 전체화하기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추출해내며 그 조각들이 가진 고유한 목적에 따라 공명하기 때문이다(Deleuze, 1964/1997).

이처럼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정동의 능력에 집중하는 “행동학(éthologie)”(Deleuze, 1981/1999, p.45)이라면, 들뢰즈는 그와 연관된 기계들의 사용과 절단, 그리고 생산의 운동들을 담지하고 있는 공명의 철학을 생성하고 있다(박영균, 2007). 이러한 공명과 정동의 사유는 포스트휴먼의 주체성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역량의 개발이 필요한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스트휴먼 담론에서 어떠한 인간-기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기계들의 작동방식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그 문제설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3. 포스트휴먼 담론의 지형과 문제설정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떠한 인간-기계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현실의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가? 특히 어떻게 위계적이거나 종속적 지배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간-기계의 대안적 관계들을 수립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포스트휴먼 담론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인간-기계의 관계 설정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고자 한다.

포스트휴먼 담론의 이해를 위해 이론적 입장의 차이들과 특징들을 다음 <표 2>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기계의 융합에 대한 기술 낙관론적 입장인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철학적 미래학의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들뢰즈와 과타리의 사건-의미론에 기초한 기계들의 배치 동학을 비롯하여 킨틀러의 기록시스템의 일부로서의 이용자론을 포괄하는 ‘아상블라주(assemblage)’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간-기계에 대한 사유들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 포스트휴먼 담론의 지형과 특징

유형	이론가	주요 입장
트랜스휴먼	닉 보스트롬(Nick Bostrom),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2005), 한스 모라벡(Hans Moravec, 1999)	- 인간과 기계, 인간과 정보의 융합을 통해 육체적 한계인 노화, 질병, 죽음, 공간 제약 등을 극복하는 ‘포스트휴먼’ 주장 - 인간의 사이보그화로 정의되는 인간종의 진화, 포스트휴먼화를 근대적 계몽의 일환으로 간주 - 포스트휴먼으로 이행하는 기술의 발전을 낙관
비판적 포스트휴먼	캐서린 해일스(Katherine Hayles, 2013), 닐 배드밍턴(Neil Badmington, 2000), 캐리 울프(Cary Wolfe, 2010), 스테판 헤어브레히터(Stefan Herbrechter, 2013),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2013) 등	- 해체론적, 정신분석학적 작업에 기초 - 인간/비인간(포스트휴먼)의 경계 자체의 불확실성, 오염관계, 포스트휴머니즘 내의 인간중심주의의 유령을 불러 해체 - 인간의 포스트휴먼화를 인간종의 발전적 진화가 아닌 불투명한 ‘인간’ 개념의 시각에서 접근
철학적 미래학의 포스트휴먼	질베르 시몽동(Simondon, 1989a; 2011), 장-프랑수아 료타르(Jean-François), 마누엘 데 란다(Manuel De Landa), 윌리엄 맥닐(William McNeill), 제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등	- 인간-기계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공진화로 이해 - 포스트휴먼의 발생적 조건과 의미를 비인간적인 우주론적 자연의 개체발생적 과정 속에서 조망하고, 포스트휴먼 논의를 사이보그 모델 너머로 확장, 존재론적으로 심화 - 기술은 인간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인간 사회의 새로운 구조화를 위한 매체임
아상블라주의 포스트휴먼	질 들뢰즈(G. Deleuze, 1968; 1969), 펠릭스 과타리(F. Guattari, 1977), 공저(Deleuze & Guattari, 1972; 1980), 킨틀러(F. Kittler, 1986)	- 인간-기계의 구분을 벗어나 ‘육망기계(들뢰즈와 과타리)나 ‘정보기계(킨틀러)로 명명함 - 기계들의 접속과 아상블라주를 강조하거나 기록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로서 미디어와 이용자들의 연결 관계 등을 분석

<표 2>에 제시된 포스트휴먼 담론의 이론가들과 입장들의 주요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트랜스휴먼의 입장은 닉 보스트롬(Nick Bostrom),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2005), 한스 모라벡(Hans Moravec, 1999) 등을 통해 표출되었다(이화인문과학원 편, 2013, 69쪽). 이 이론가들의 ‘포스트휴먼’에 대한 관점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 즉 노화, 질병, 죽음, 공간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과 기계, 인간과 정보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낙관론적 입장에 근거한다. 기본적으로 이 관점은 인간종의 진화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이보그화나 포스트휴먼화 경향을 근대적 계몽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있다(김재희, 2014). 왜냐하

면, 근대 계몽의 이상인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인간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포스트휴먼으로 이행하는 기술의 발전을 낙관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입장에 대해 비판적 포스트모던의 이론가들은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은 기술 문화의 급진적 변화를 부정하지 않지만, 트랜스휴먼 이론가들의 데카르트적 인간중심주의나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김재희, 2014). 여기에는 캐서린 해일스(Katherine Hayles, 2013), 닐 배드밍턴(Neil Badmington, 2000), 캐리 울프(Cary Wolfe, 2010), 스테판 헤어브레히터(Stefan Herbrechter, 2013) 등이 포함된다(이화인문과학원 편, 2013, 71-73쪽). 이 중에서도 헤어브레히터(Herbrechter, 2013)가 언급하는 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포스트휴먼을 표방하는 저술들을 통해 포스트구조주의의 반휴머니즘적 관점을 계승하여 인류중심주의, 종차별주의, 보편주의 등의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새로운 휴머니즘'으로서 포스트휴머니즘을 도출하는 전략을 취한다. 한편, 해일스(Hayles, 2013)는 기술을 매개로 신체화된 실재에 기초한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성 중심주의에 근거한 데카르트의 코기토 논리를 비판하며 신체성을 강조하는 사유에서 비롯되는데, 〈포스트휴먼〉의 저자인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2013/2015)도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신체적으로 '체현된 주체'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브라이도티는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을 차용하여 다양한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적 체현과 성(gender)의 차이들을 통해 주체가 구성되는 방식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판과 창조성을 겸비한 '행동주의(activism)'의 적극적인 실천성을 되살려내 포스트휴먼 인류의 전망을 도출하는 기획을 수행하고 있다(Braidotti, 2013/2015). 이러한 관점은 박선희(2017)의 "인간과 디지털 존재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이 연구는 브라이도티의 관점과 시몽동의 철학에 근거하여 포스트휴먼으로서 유목적 주체이자 기술적 주체에 대한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영화 〈그녀〉의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인간과 디지털존재의 공진화 가능성과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점과 접속하는 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비판적 포스트모던의 입장을 일괄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해체론적이거나 정신분석학적 작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바탕으로 표명되고 있다. 특히 인간과 비인간 혹은 포스트휴먼 사이의 경계가 갖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제기, 포스트휴머니즘에 내재한 인간중심주의의 혐의들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논박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포스트구조주의의 반휴머니즘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인간중심주의나 종차별주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휴머니즘의 전망들을 도출하고자 한다(Herbrechter, 2013; 김재희, 2014).

그 다음으로 '철학적 미래학'의 관점에서 기술과 포스트휴먼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주로 아서 브래들리(Arthur Bradley)에 의해 취해진 것으로서 그 근거는 앞의 두 입장과 다른 제 3의 이론가들을 명명하며 '철학적 미래학'의 범주에 포함시킨 데서 비롯된다. 대표적인 이론가로서 장-프랑수아 료타르(Jean-François), 마누엘 데 란다(Manuel De Landa), 윌리엄 맥닐(William McNeill), 제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덧붙여 김재희(2014)는 비인간적 우주론의 관점에서 포스트휴먼의 발생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몽동(Simondon, 1989a/2011)의 입장까지 포함시켜서 볼 것을 주장하였다. 시몽동의 입장은 료타르와 같은 구조를 전제하지 않은 주체 중심의 포스트모더니즘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인간-기계의 관계 설정에 초점을 둔 관점에서 '철학적 미래학'의 포스트휴먼 입장으로 포괄시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이렇다면, 료타르가 컴퓨터 과학과 수행자로서의 주체의 행위들을 강조하는 한편, 시몽동(Simondon, 1989a/2011)은 기술적 소외와 정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기계의 앙상블(Ensemble)'을 대안적 방안으로 제시하며, 인문교양 뿐 아니라 발명과 같은 기술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은 인간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인간 사회의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매체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호(2016)는 '미디어 존재론: 시몽동의 '개체화'를 통해 본 매클루언의 미디어론'에 대한 연구에서 시몽동의 개체화 논리와 상전이의 사유를 바탕으로 매클루언의 미디어론을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매클루언의 관점은 관계론적 미디어 존재론으로서 '미디어가 메시지이다'는 명제에 함축적으로 제시되며, 이는 시몽동의 사유와 연관시켜 매개와 소통의 관계적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유의미한 접근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인간-기계의 이상블라주와 시스템을 강조하는 입장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들뢰즈(Deleuze, 1968; 1969)와 과타리(Guattari, 1977), 그리고 그들의 공저들(Deleuze & Guattari, 1972; 1980)을 통해 표출된 새로운 포스트휴먼의 입장들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인간을 '소위 인간(der sogenannte Mensch)'이나 '정보기계(Informationsmaschine)'로서 규정하는 Kittler(1986, p. 29; p. 281)의 미디어 문화와 철학적 사유들도 연관시켜 조명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브라이도티(Braidotti, 1994/2004) 역시 저서 〈유목적 주체〉를 통해 들뢰즈와 과타리의 '기관 없는 신체'에 대한 사유를 적용하여 여성 신체들에 대한 권력의 효과들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의 이론적 자원들을 두 이론가들로부터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인 베넷(Jane Bennett)도 여성 신체-기계의 이상블라주, 즉 고정되지 않고 항상 열린 상태로 재구성되는 "총체화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

(Bennett, 2010, pp. 21-24)에서 들뢰즈와 과타리의 인간-기계의 관계 설정과 운동성에 대한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기계의 이상블라주와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 입장은 인간-기계의 이원적 구분을 벗어나 '욕망기계'(들뢰즈와 과타리)나 '정보기계'(키틀러)로 명명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관계들을 횡단하거나 근대적 주체관을 형성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들은 앞에서 살펴본 시몽동의 '인간-기계의 양상불'에 대한 논리와 유사한 맥락에서 새로운 포스트휴먼의 관계망과 공동체의 실천에 대한 전망들을 도출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포스트휴먼 담론의 지형에 대한 탐색은 새로운 이용자들의 역량에 대한 패러다임을 검토하게 한다. 과타리가 강조하듯이, 주체성 생산의 문제의식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을 통칭하는 과학적 패러다임을 "미학적-윤리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관점에 기초한다(Guattari, 1992/2003, 21쪽). 왜냐하면, 주체성 생산은 지식의 체계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며 기술적-제도적인 배치 장치(dispositif)들이 정신의학, 대학 교육, 혹은 대중매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Guattari, 1992/2003). 즉 포스트휴먼의 주체성이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미학적-윤리적 역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기반한 욕망의 관점을 극복하고, 욕망 생산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인과 집단의 주체성 생산의 원리들을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4. 포스트휴먼의 주체성 생산과 미학적-윤리적 역량

앞에서 살펴본 포스트휴먼 담론의 지형은 시몽동의 기술철학과 들뢰즈와 과타리의 기계론을 넘어서서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기초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두 사상가의 이론적 관점과 사유들에 근거해 보다 집약적으로 포스트휴먼의 주체성 생산과 미학적-윤리적 역량의 중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물론 양자의 관점에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 설정, 개체나 기계의 배치 방식, 그리고 정서적 측면 등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들뢰즈와 과타리의 기계론이나 공명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이웃하는 관계가 공명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들이 서로 다른 기계들과 접촉하고 절단하며 욕망의 흐름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시몽동과 들뢰즈/과타리의 사유는 차이점을 전제로 한 정서의 변이를 탐구하는 정동 효과들을 창출하기에 적합한 지형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지했던 이론적 사유들을 적용하여 포스트휴먼의 주체성 형성을 위해 어떠한 미학적-윤리적 역량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포스트휴먼의 주체성 생산과 정동의 윤리 역량

우선, 포스트휴먼의 주체성 생산과 정동의 윤리 역량에 대해 살펴보자. 주지했듯이, 시몽동의 기계는 '기술성이 개체 수준에서 표현된 기술적 대상'이라면, 들뢰즈/과타리의 기계는 '이질적인 항들의 이웃하는 관계'로서 공명의 효과를 형성한다. 양자의 차이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성을 기술적 기계에 초점들 두는가 아니면 모든 물질적 신체와 기계들의 작동방식들을 망라하는가 하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은 과타리의 "이질발생(hétérogenèse, heterogenesis)"에 대한 기계론의 사유에서 구체화된다(Guattari, 1992/2003, 49~50쪽). 즉 기계학이 자기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기술의 지식체계를 다룬다면, 기계론은 기계들이 서로 밀어내거나 선택, 배제하는 이질적인 차이의 생성 방식을 다룬다. 즉 기계의 출현은 동형성(同形性)의 원리에 근거한 구조와 달리 상이하고 이질적인 형태 아래 발전시키는 "타자성(alterité)"의 차원을 지닌다(Guattari, 1992/2003, 55쪽). 기계는 전체 구조로 통합하기 어려운 형식적 균형의 절단, 즉 고장, 파국, 죽음의 위협이라는 이질적인 측면과 불균형 상황을 통해 새로운 생산의 문턱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타리의 시각은 라캉의 결여로서의 욕망 관점, 특히 존재론적 이질발생을 전제하지 않고 "단일화와 통사화 작업을 수행하는" 기표 중심의 기호학과 구분된다(Guattari, 1992/2003, 57쪽). 즉 기계적 배치의 작동 기반인 이질발생의 원리는 하나로 통합하고 단일화하는 등가성의 원리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예컨대, 자본주의적 등가성의 척도는 모든 실존적 부가 교환가치의 명령에 굴복하고 동일한 경제 권력의 척도에 따라 평가되도록 한다. 반면, 다양한 기계들의 가치 증식은 단지 경제적 권력이나 교환가치가 아니라 욕망적 가치, 미학적 가치,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론의 복합체와 대비된다. 따라서 과타리가 제기한 '기계적 이질발생'의 사유는 자본주의적 가치와 동일성의 척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미학적, 분석적 역량의 실천이 왜 중요한지를 환기시키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질발생의 사유는 인간-기계의 관계 설정과 정동의 역량 개발의 측면에도 적용된다. 우선,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간-기계의 이질발생의 작동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시몽동이 강조한 수평적 관계의 사유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적 불균형성의 극복이 아니라 흐름의 절단과 새로운 차이의 생성과 전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몽동의 경우, 기계를 지배 권력의 수단으로 독점하고 악용하는 기술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 또한 들뢰즈와 과타리의 경우 인간도 '욕망기계'로 정의하면서 이질적 항들의 관계와 흐름의 절단을 통한 욕망의 생산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성 생산의 대안적 관점을 발견하게 한다. 양자의 관점은 플라톤주의의 우산 속에 있는 데카르트의 근대 코기토 논리와 이성중심주의를 벗어나려는 이질발생의 관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로봇은 인간과 어떠한 이질발생의 관계가 가능한가? 이것은 이성 중심적 휴먼을 넘어선 새로운 포스트휴먼이 어떠한 주체성을 통해 인공지능 기계와의 만남과 접속을 행할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정동의 역량을 개발할 것인지의 문제들과 궤를 같이 한다. 시몽동은 인간-기계의 만남을 ‘인간-기계의 앙상블’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기술만능주의나 기술 관료의 열망하는 ‘고삐 풀린 정복의지’를 벗어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나 ‘기계들을 연결시키는 살아있는 통역자’로서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휴먼의 주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계들과의 앙상블을 이루며 시대적인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협력하는 ‘조정자’나 ‘발명가’가 되는 것이다. 특히 시몽동은 모든 기술적 지배가 권력의 예속화 과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기계의 상호 협력적 연대를 통해 인간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 ‘개체’가 아니라 개체초월적 집단의 형성을 통해 ‘주체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르노(Paolo Virno, 2001/2004)는 시몽동 테제를 두 가지로 집약하며 다중의 사유에 적용할 것을 고려한다. 첫 번째 테제는 “개체화는 결코 완결되지 않는다, 즉 전-개체적인 것은 결코 단독성을 완전히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Virno, 2001/2004, 131쪽). 즉 주체는 전-개체적 요소들과 개체화된 국민들의 항구적인 혼합(mélange, 뒤섞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주체란 ‘뒤섞임’이고 합성물로서만 단독화할 수 있다. 예컨대, 내 신체는 ‘나’이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에 속하며, 재생산될 수 없는 독특함(unicité)을 지니지만 또한 익명의 보편성을 띠기도 한다. 그 결과 “주체는 전쟁터”가 된다(Virno, 2001/2004, 132쪽).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개체적인 것과 개체화된 것의 관계는 정서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이다. 주지했듯이 시몽동은 개체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서적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은 주체생산의 과정에서 개체들 사이의 개체초월적인 집단적 연대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들뢰즈와 고타리는 기계들의 공명과 정동을 강조한 바 있다. 기계는 서로 접속을 통해 욕망을 생산하지만, 각각의 기계들이 다양한 특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단의 체계들’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입기계는 다양한 음식기계나 식도기계, 전화기 등과 만나 ‘먹는 기계’, ‘위기계’, ‘말하는 기계’ 등 서로 차이들을 지닌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 이것은 시몽동의 ‘개체초월적 집단성’처럼 기계가 하나의 전체화된 세계가 아니라 선험적인 장에서 다양한 흐름들을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계들의 생산 활동은 기술적 기계뿐 아니라 이론적, 사회적, 예술적 기계들로 분화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계들이 서로 이질적인 차이들을 서로 공명하며 다양한 선분들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경직된 선, 유연한 선,

그리고 탈주선은 국가권력이나 관료주의에 의해 어떻게 기계적 배치가 이루어지는지, 혹은 분자화된 다중의 형성을 통해 탈주선과 같은 복수의 방향성을 형성하며 주체성을 실현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들뢰즈의 시각에는 시몽동의 개체화론의 영향이 깃들어 있는데, 이것은 〈차이와 반복〉에서도 발견된다. “최근에 질베르 시몽동이 언급했듯이, 개체화는 무엇보다 먼저 어떤 준안정적인 상태, 즉 ‘불균등화’의 현존을 가정한다. 이는 적어도 두 개 이상 서로 이질적인 크기상의 질서나 실재상의 위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前) 개체적 상태는 특이성을 곁여하고 있지 않다. 즉 특이하거나 독특한 점들은 포텐셜들의 실존과 분배에 의해 정의된다(Deleuze, 1968/2004, 524쪽).” 들뢰즈의 지적처럼, 개체화의 활동은 문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불균등한 요소들을 어떤 짝짓기의 상태로 통합”하는 데 있는데, 이를 통해 ‘기계들 사이의’의 내적 공명이 보장된다. 따라서 개체의 반쪽은 어떤 전-개체적인 것에 속하지만, 또 다른 반쪽은 “개체의 독특성을 간직하는 저장소”로 작용한다(Deleuze, 1968/2004, 525쪽). 이러한 맥락에서 들뢰즈/파타리는 ‘인간-기계의 이상블리주’는 파편화된 기계들을 서로 연결하는 공명의 실천 방법들을 제공한다. 즉 인간-기계의 비위계적 관계를 지향하며 고정되지 않고 항상 열린 상태로 재구성되는 “충체화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Bennett, 2010, pp. 21-24). 즉 탈주선을 통한 기계적 배치의 사유를 통해 기계들 사이의 공명과 새로운 관계의 변이들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포스트휴먼의 주체성은 인간-기계의 관계성을 표명하는 ‘양상블’과 ‘이상블리주’로 수렴된다. 이것은 기술의 도구화나 위계적 유용성이 갖는 자본주의적 가치의 등가성과 동질성의 논리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발생의 생성 원리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기계적 이질발생과 차이의 생성은 하나의 통합된 기표나 통념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욕망의 생산들을 위해 자기복제를 수행한다. 따라서 인간-기계의 수평적 관계의 형성은 형식적 균형성이 아니라 다양한 기계들의 접속과 흐름, 절단의 작동을 전제로 할 때 새로운 주체성 생산의 전망은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수평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상호 협력적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포스트휴먼의 주체성 생산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학적-윤리적 정동의 역량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응하는 포스트휴먼의 주체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이용자의 실천적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포스트휴먼 주체의 기술성 역량

한편,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차원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게 제

기된다. 이것은 비르노가 언급했던 시몽돈 테제의 두 번째 측면과 연관된다. 즉 집단적인 것, 집단의 경험이나 집단의 삶이 단독적인 개체의 두드러진 특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영역이 아니라 반대로 “새롭고 근본적인 개체화”를 가능하게 하는 영토라는 점이다(Virno, 2001/2004, 133쪽).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집단 속에서 고유한 단독성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하고 정점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립된 주체 내부가 아니라 집단에 참여하며 지각, 언어, 생산력과 같은 전개체적인 요소들이 개체들의 경험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르노(Virno, 2001/2004)는 맑스가 〈요강〉의 ‘기계에 관한 단상’에서 제시했던 ‘사회적 개인’의 개념을 환기시킨다. 비르노에 따르면, 사회적 개인은 “모순어법, 즉 대립된 것의 통일”로서 ‘사회적인 것이 전-개체적인 특성을 지닌다면, ‘개인’은 개체화 과정의 궁극적 결과로서 표출된다(Virno, 2001/2004, 135쪽). 따라서 사회적 개인은 곧 다중을 지칭하는 것으로 집약되며, 이 과정에서 시몽돈의 개체화론이 투영되어 다중의 기술적 활동을 전망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중의 기술적 활동에 대한 문제는 포스트휴먼의 주체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Puissance)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한다. 비르노에 따르면, 역량은 능력(faculté), 재능(capacité), 가능태(dynamis) 등을 포괄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문을 제조하거나 사과를 수확하는 것, ‘공동회선’ 망을 이용해 전화교환원들 끼리 하는 수다, 전문가의 교정 작업 등을 가리킨다. 이에 근거해 비르노가 제기하는 것은 ‘노동-역량’이다. 이것은 특정한 실재적인 능력이나 노동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생산의 실천에 관여할 때 잠재해 있는 “인간 능력의 총체”를 가리킨다(Virno, 2001/2004, 143쪽). 따라서 비르노의 노동 역량에는 “주체성으로서의 노동”(Virno, 2001/2004, 141쪽)이나 푸코식의 삶-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활동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르노의 역량에 대한 사유는 지능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휴먼 주체의 역량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어떠한 역량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포스트휴먼 주체의 역량은 기술성을 성찰하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화될 수 있다. 즉 단지 인공지능 기계들의 유용성과 사용법을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된 이용자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명의 계기로서 조명할 수 있다. 시몽돈(Simondon, 1958/2011)이 언급하듯이, 발명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존재론적 위상을 지닌 개체초월적 역량이기 때문이다. 이 역량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술성에 대한 도전적인 문제제기이다. 예컨대, “기계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새로운 기계들의 사용권은 누가 가지며, 그것을 거부할 권리는 누가 갖는지” 묻는 것이 기술성의 주요한 특징이다(Simondon, 1958/2011, 362쪽). 이러한 관점은 시몽돈의 휴머니즘에 대한 사유에서도 나타난다. 그에 따르

면, 휴머니즘은 각각의 역사적 시기에 맞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어떤 문명이 허용하거나 생각하는 소외의 가장 극심한 측면을 겨냥하기 때문”이다(Simondon, 1958/2011, 148). 따라서 휴머니즘은 각각의 시대가 처한 소외의 주된 위험을 겨냥하면서 고유한 휴머니즘을 발견해야 한다. 휴머니즘은 “단번에 정의될 수 있을 하나의 독트린도, 심지어 하나의 태도조차도 결코 될 수 없는” 것인 까닭이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의 기술성은 한 시대의 기계만능주의나 소외, 그리고 불안과 위험의 요인들을 해결하고 개체초월적인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중 실천의 역량으로 고려된다.

3) ‘인간-기계 앙상블’을 위한 디지털 역량

마지막으로, 포스트 휴먼 주체는 ‘인간-기계’ 앙상블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즉 공동체의 삶-정치를 실현하는 측면과 새로운 기술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획이다.

우선, 인간-기계의 공진화를 경제적 이윤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삶-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발명 역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몽돈(Simondon, 1958/2011)에 따르면, 인간적인 사유의 변화(devenir)에 독특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윤리적, 기술적, 과학적인 모든 발명은 처음에는 인간의 해방과 재발견의 수단이었다가 역사적 진화를 거치면서 “자기 고유의 목적을 배반하고 인간을 제한하고 복종시키는 도구”로 변한다(Simondon, 1958/2011, 149쪽).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들뢰즈와 과타리 역시 탈주선과 같은 기계적 배치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과타리는 정보와 소통의 기술공학적 기계들이 인간 주체성의 핵심에서 그것의 기억과 지성뿐 아니라 감정, 정동들, 무의식적 환상들 안에서 작동하는 “인간-기계 앙상블라주”를 제기한다(Guattari, 1992, p. 4). 따라서 포스트휴먼 주체의 ‘인간-기계’ 앙상블의 발명 역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립과 소외를 넘어서서 디지털 관계망과 지역 공동체의 발명 역량을 개발하는 공동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이 요구된다.

또 다른 하나는 미디어교육의 측면에서 경직된 선이 아니라 탈주의 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문화의 형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디어 이용자가 발명의 역량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디지털 기술문화 교육을 기획할 수 있다. 시몽돈의 기술철학을 구체화하고 있는 라투르(Latour, 1998)의 경우, ‘사물 정치(Dingpolitik)’의 기획을 제안한다. 즉 사물지향적 민주주의(object-oriented democracy)를 추구하는 이 입장은 디지털 기술을 비전문가 대중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대변자들의 합법적인 참여와 사물들이 합법적 방식으로 대변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

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홍성욱, 2010; 김재희, 2017). 즉 비전문가와 전문가, 객관과 주관, 사실과 가치의 이원적 경계를 해체하고 혼종적인 공론장과 협상의 행위자 네트워크인 ANT(actor-network theory)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인간-기계 앙상블의 역량을 표출하는 사례로서 파악된다.

하지만, 더 고려할 것은 비전문가들인 일반 이용자들이 어떻게 기계들과 관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뮬동이 강조한 기술문화 교육을 기획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것은 디지털역량의 개발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일환에서 그 대안적 방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숙(2014)은 다음과 같이 '미디어정동능력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미디어정동능력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뿐 아니라 감정적인 의사소통 행위까지도 고려하여 미디어교육의 패러다임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점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것은 단지 긍정적인 이용자의 감정이나 정서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비르노가 <다중>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다중의 "감정적 상황"은 양가적인 것으로서 갈등의 형태뿐 아니라 동의의 형태, 혹은 체념이나 불안감을 내포하기도 한다(Virno, 2001/2004, 143쪽). 예컨대, 인터넷 댓글이나 SNS 소통 사례들에서 다중의 감정적 어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지 심리학적 성향이 아니라 노동, 여가, 느낌, 정치 영역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편재되어 있는 존재와 느낌의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패러다임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및 범주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기존의 미디어교육 패러다임에는 정서의 변용, 즉 '정동'의 범주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 비판과 성찰, 행동에 포함되는 일부로 간주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강진숙, 2014). 이를테면, 기존의 미디어교육 패러다임을 정리하면, 도덕, 교양/기술, 행동지향 등 세 차원으로 구분된다. 도덕지향 패러다임에 보호주의와 예방주의가, 교양/기술 지향에는 미디어/비판적/정보·디지털역량 그리고 행동지향에는 미디어능력의 개념과 이론 등이 패러다임의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이용자 디지털역량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이성중심주의나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인간-기계 앙상블의 역량들을 발명하는 데 있다. 이를테면, 바아케(Baacke, 1996)의 미디어능력이 주로 합리성, 성숙, 숙련성을 중심으로 한 행동중심주의에 기반해 미디어 지식, 비평, 이용, 구성/제작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포스트휴먼의 주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디지털 기계 사이의 정서적 감동이나 정동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과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그 목표는 사이버공간에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의 변이를 주도할 수 있는 정동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성과 기술적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미학적 능력을 습득하는 데 있

다. 이를 위해 마을 미디어나 공동체의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디지털 기계와 다중의 수평적, 협력적 관계가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디지털 기계들을 통해 어떻게 한 사회의 발명가이자 조정자로서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휴먼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우(2016)는 시몽동의 기술문화와 기술적 대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대상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돌봄의 방식들을 구현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시각은 디지털 알고리즘과 기술문화에 대한 이용자의 실천 방안을 기획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포스트휴먼 담론과 인간-기계의 관계설정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먼의 주체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미학적-윤리적 역량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포스트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기계 관계 설정과 정동(affect)의 역량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서 포스트휴먼 담론의 지형과 기계에 대한 문제설정들을 조명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다양한 인간-기계 관계에 대한 이론들 중에서도 시몽동의 기술철학과 역량의 발명에 대한 사유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고, 이와 함께 시몽동의 개체화 사유와 연관성을 지닌 들뢰즈와 파타리의 기계론과 배치의 운동성, 그리고 공명/정동 등을 이론적 자원으로서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의 초점은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미디어가 어떻게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동질성과 등가성의 척도에 매몰되지 않고 이질적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상호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즉 새로운 지능정보 사회에서 어떻게 포스트휴먼의 주체성 생산 과정에서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미학적-윤리적 역량은 어떠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 목표는 근대 사유의 핵심이자 현재까지도 포스트휴머니즘의 사상가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들의 이질발생과 차이의 생성 원리에 토대를 둔 ‘인간-기계의 앙상블’ 혹은 ‘인간-기계의 이상블리주’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미디어교육 분야에 집중하여 이용자의 기술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포

스트휴먼의 다양한 주체생산과 미학적-윤리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의 파고에 수동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이용자들이 디지털 미디어교육 참여를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동 역량을 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서도 이용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감정의 상황까지 고려한 미디어정동능력과 디지털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미디어교육적 차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덧붙여 본 연구의 문제설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을 활용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사례들과 이용자의 주관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진숙 (2014). 미디어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시론: “미디어정동(情動, affectus) 능력”의 개념화를 위한 문제제기.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3호, 195-221.
- 강진숙 (2015). 정동의 장치와 주체화 연구 방법 - 미디어 비오그래피: 푸코, 아감벤, 들뢰즈의 장치와 주체화, 배치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1권 4호, 4-37.
- 강진숙 (2016).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교육연구의 주사위: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지금.
- 김상호 (2016). 미디어 존재론: 사물동의 '개체화'를 통해 본 매클루언의 미디어론. <언론과 사회>, 24권 2호.
- 김수미 (2017). 포스트휴먼 기술 담론과 포스트휴먼 주체 구성의 정치성에 대한 탐구: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5권 2호, 5-57.
- 김재희 (2014). 포스트휴먼 사회를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 질베르 시몽동의 기술-정치학. <범한철학>, 72권, 387-414.
- 김재희 (2017).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서울: 아카넷.
- 박선희 (2017). 인간과 디지털 존재의 관계: 관계의 물질성, 비소유성, 개체초월성. <한국언론정보학보>, 86호, 42-68.
- 박성우 (2016). 기술적 대상과 디지털 밀리우의 정치경제학: 질베르 시몽동과 기술문화연구의 접합. <문화와 정치>, 3권 2호, 155-173.
- 이진경 (2016). 들뢰즈의 유물론, 혹은 '외부에 의한 사유'. <마르크스주의 연구>, 13권 1호, 104-129.
- Bennett, J. (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raidotti, R. (2013). *The Posthuman*. 이경란 옮김(2015). <포스트휴먼>. 서울: 아카넷.
- Deleuze, G. & F. Guattari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김재인 옮김 (2001). <천 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 Deleuze, G. & Parnet, C. (1977). *Dialogues*, Paris: Flammarion.
- Deleuze, G. (1964). *Marcel Proust et les signes*. 서동욱 외 옮김 (1997).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울: 민음사.
- Deleuze, G. (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상환 옮김 (2004).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 Deleuze, G. (1978). 정동이란 무엇인가?. 1978년 1월 24일 뱅센느대학 강의. In Deleuze, G. & Negri, A., et. al. *Immaterial Labor & Multitude*. 서창현 외 옮김 (2005).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울: 갈무리, 21-67.

- Deleuze, G. (1981). *Spinoza: Philosophie pratique*. 박기순 옮김 (1999). 〈스피노자의 철학〉. 서울: 민음사.
- Deleuze, G. (1986). *Foucault*. 권영숙·조형근 옮김(1996). 〈플뢰르의 푸코〉. 서울: 새길.
- Guattari, F. (1992). *Chaosmosis: An Ethico-Aesthetic Paradigm*. 윤수중 옮김 (2003). 〈카오스 모제〉. 서울: 동문선.
- Hardt, M. (1999). Affective Labor. *Boundary 2*, vol. 26, no. 2(Summer 1999). In Deleuze, G. & Negri, A., et. al. *Immaterial Labor & Multitude*. 서창현 외 옮김 (2005).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울: 갈무리, 139-157.
- Latour, B. (1998). To modernize or to ecologize? That is the question. in B. Braun & N. Castree(eds.). *Remaking Reality-nature at the millennium*. London: Routledge.
- Latour, B. etc. 홍성욱 엮음 (2010). 〈인간·사물·동맹〉. 서울: 이음.
- Simondon, G. (1958).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 김재희 옮김 (2011).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서울: 그린비.
- Simondon, G. (2005). *L'Individuation à la lumière des notions de forme et d'information*. 황수영 옮김 (2017).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서울: 그린비.
- Spinoza, Benedict de (1673; 1677). trans. Elwes, R. H. M. (1951). *A Theologico-Political Treatise and A Political Treatise, Translated from the Latin with an Introduction*. New York: Dover. 최형익 옮김, 〈신학정치론/ 정치학논고〉. 서울: 비르투.
- Spinoza, Benedict de (1675). *ETHICA*. 강영계 역 (1990). 〈에티카〉. 서울: 서광사. (라틴어본: <http://www.thelatinlibrary.com/spinoza.html>)
- Virno, P. (2001). *Grammatica della moltitudine*. 김상운 옮김(2004). 〈다중〉. 서울: 갈무리.

최초 투고일 2018년 2월 9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8년 5월 29일

Abstract

Post-human Discourse and Aesthetic-ethical Competence

Rethinking the Human-Machine Relationship

Jin-Suk Ka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Reflections on the status and role of human beings in the new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re important tasks to establish the digital media competence of the users by reflecting on the reasons of the posthumans and the technical culture beyond the human centris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deas of post-humans and derive the problem setting and direction to establish users' digital media competence, focusing on establishing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machines. To do this, the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topography of the Post-Humanism that is growing in interest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xplore theories such as G. Simondon, G. Deleuze, and F. Guattari to explore the issues of technology philosophy and problematik for human-machine relationship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an opinion on media-educational application methods and components of capabilities to strengthen the subjectivity of post human beings and invent digital media compete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a basic source of practical data for researching the identity of post-human beings and for exploring practical methods for inventing user's existential characteristics and capabilities in media-educational aspects.

Keywords: Post Human, Simondon, Deleuze, Guattari, Machine